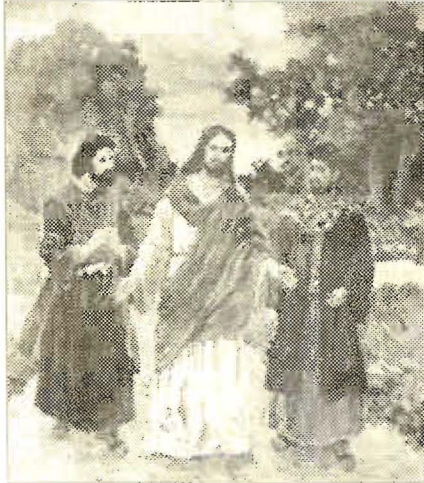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모성월 · 부활 제3주일
제34권 23호(가해) 2014·5·4

[묵상]



부활하신후
엠마오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네 삶은 어떠한가?
대답은 하나!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
등산을 하노라면 인생은 산을 오르는 여정과 같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등산이라는 것은 산 정상에서 느끼는 기쁨도 있지만,
산에 오르는 과정이 더 가치가 있고 맛이 있다.
산에 오르기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다양한 나무와 꽃들로 이루어지는 변화에 화창하기만 하다.
그러나 오르면 오를수록 출발할 때와는 다른 것들을 체험한다.
피곤과 고통들 말이다.
그러다가 목표인 정상에 도달하면 모든 어려움을 잊고
평화와 기쁨을 갖는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도 이와 같은 여정이다.

너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굶뜨는가?

우리는 매 순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길도 산에 오르는 과정만큼이나 순조롭지만은 않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무척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신앙에서의 기쁨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계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송희영 시몬
특전미사	(생)김인혜 클라라, 최태훈 아오스당
주 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이명자 로사, 엄익찬 안토니오, 이숙자 루피나 & 이용완 & 김정숙 & 홍숙녀 마리아 & 이두재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생)이인숙 베로니카 & 이준 베드로 & 이건 미카엘, 오세원 아타나시오, 김스테판 프란치스코, 박인식 토마스 & 이기원 리디아, 정지나 수산나 & 이화용 마이클, 최조엘 가브리엘라, 백삼위 공동체, 오 마우라 수녀,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2,14.22-33
화답송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 나 이 다.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않게 하시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제 2독서 베드로 1서(1Peter) 1,17-21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 음 루카(Luke) 24,13-35

영성체송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66	170	166
봉헌	264	268	272
성체	One Bread One Body	287	279
파견	169	327	327

올바른 성모신심

제5장 올바른 성모 공경

맺는 말

또 한편으로 성모 공경의 정당성과 잘못된 성모 신심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교서나 교육 자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지시키는 한편, 장차 사목자가 될 신학생들에게 마리아론의 필수적 교육이 요청된다. 또한교도권이 공지문을 통하여 금하고 있는 데도 이를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교회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로 우리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에 더욱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부록 1

마리아의 노래(성모의 노래, Magnificat)

<루카 1,46-55>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 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 힘을 펼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도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부록 2

성모 찬미가 ‘아카티스토스’

<PG 92, 1335-1348>

(이 찬미가는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였기에 기도문으로 사용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사들 가운데 으뜸 천사

하늘로부터 파견되어
하느님의 어머니께 인사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천사의 영적 인사와 더불어 잉태되어 인간이 되신 주님!
당신을 바라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계속>

완벽한 가족사진

오래전 일입니다. 많이 아프고 정을 주었던 젊은 친구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처참한 그 친구의 시신을 수습하고 영안실에 안치한 후 돌아오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침묵하고 계신 당신보다 살아있는 그 친구가 당신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야만 했습니까?” 하며 울부짖듯 원망 섞인 항의도 했습니다.

대학교수가 된 친구 곁에 순하고 착한 아내, 노부모, 그리고 예쁜 두 아이. 친구의 집에 자랑스레 걸려있던 가족사진은 ‘완벽한 가족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며 부러움을 느낄 정도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그 가족사진은 절망에 빠진 한 가족의 모습을 대변하는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노부모, 아직 초등학교생인 두 아이, 오로지 남편만을 믿고 따르며 뒷바라지해 온 젊은 아내. 누구 하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여력도 없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암담한 가족의 냉혹한 현실만이, 한때는 완벽했던 ‘가족사진’과 함께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 주님과 함께하던 삶은, 제 친구가 죽기 전의 가족사진처럼 행복하고 완벽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에게 자기 인생과 미래에 대한 긍지였고 희망이었으며, 지금까지의 것들을 모두 버리고 따를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태양과도 같았던 스승이 너무도 무기력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느꼈을 극도의 실망감은, 마치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뿔뿔히 나가는 듯한 처연함,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암담하고 참혹한 현실 앞에서 이제 그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절망의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엠마오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의 영상만을 가슴에 담은 그들, 스승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삶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절망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노을이 질 무렵까지 동행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주막에 들러 빵을 떼어주실 때에야 ‘아, 이분이시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저 충격에 넋이 나간 그들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두 제자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해후를 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 관념,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엠마오는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가 되어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길의 고비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포진되어 있는 주간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곁을 지켜주시는 그분과 함께 따뜻하고 든든한 ‘가족사진’을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봅시다.

◆차원석 신부 / 서울대교구 노원성당 주임

남을 원망하다가

탱자나무 가시 길고 날카로워도 하얀 탱자꽃. 찢기지 않던걸. 생선가시 가늘고 많지만 어느 것 하나도 재 살은 찢르지 않던 걸. 공연히 남의 꽃 꺾으려다 손가락 찢리고 남의 살 삼키려다 가시가 걸렸으면서 가시가 많다, 날카롭다 말이 많지. 그게 어디 가시 탓이라고. 내게야 가시지 그들에게는 몸이요 뼈인 것을.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데레사	신종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아영 아가다	남성철 베네딕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1반 안나회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4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성모성월

교회는 5월을 성모성월로 선정하여 신자들의 뜻을 모아 기도와 선행에 정진케 하고 있습니다. 엿그제 금요일(2일) 우리들은 성모의 밤을 통해서 '만물의 여왕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미사를 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성모님께 특별한 은혜와 전구를 청하며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 **예비자 교리반 5월1일(목)부터 개강**

- 교리시간 : 12월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분~9시10분, 2층 교리실
- 세례식 : 12월21일(주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2014~2015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신청 안내**

- 수혜대상 :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 및 등록신자의 자녀로 교회활동및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기간 : 현재 신청서 배부중~5월31일까지 마감
(사무실에 비치)
- 장학금 지급 : 8월10일 예정, 한 학생당 \$2,000

◆ **백삼위신자들의 예술작품 11일까지 강당에서 전시중**

- 작품내용 : 수채화, 유화, 묵화, 사진작품, 서예 등
- 교우들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 **제11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 5월18일 주일미사 시간 변경 : 아침미사(오전 7시30분)와 낮미사(오전 10시) * 학생미사는 오전 10시 미사와 통합
- 체육대회일시 : 5월18일(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 장소 : 축구장 잔디밭

- 대상 : 구역별 전 신자
- 청팀 : 토런스 동, 서, 남 구역
- 백팀 : 토런스 북, 하버/카슨, PV 구역
- 경품 : 한남마켓, 베스트바이 선물권
- 경품추첨대상 : 추첨진행중 참석자로제한, 추첨권 당일배포
- 참가상 : 끝까지 남아있는 가족당 쌀 1포씩
- 문의 : 박개순 도미니코 문화체육분과장 ☎(310)971-7043

◆ **고등부 전진성사**

- 일시 : 5월24일(토) 오전 10시 성마가렛 매리 본당
- 주례사제 :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우리본당에서 4명의 학생과 교사2명이 예정자)
- 리허설 5월16일(금) 오후 7시 30분
- 참회예절 : 5월23일(금) 오후 7시
- 문의 : 빈센트 신 건진교리교사 ☎(310)744-5878

◆ **첫영성체 교리반 / 부모님 모임**

- 일시 : 5월11일(주일) 오전 10시 30분~오전 11시30분
- 장소 : 성당 2층 주일학교 교사실
- 대상 : 2학년 학생과 부모님,
그외 첫영성체 교리학생과 부모님
- 첫영성체 예식 : 6월1일(주일) 낮 11시 미사중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주임 ☎(310)780-8895

◆ **성전 안에 음식물과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미사 또는 특강,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 먹던 음식이나 음료수를 들여갈 수 없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4일(주일) : 자모회가 친교점심 봉사(햄버거 \$3)
*주일학교(8학년 햄버거)
이밖에 도넛과 커피, 냉동민어, 유기농비누 등을 판매합니다.
- 5월11일(주일) : 어머니날, 친교자리 없습니다.
* 주일학교(아버지들께서 봉사, 피자)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장인모	강태홍	구자운	김상근	김우용	김윤진
	김정엽	김준호	김 준	남명자	남성철	박상준
	박원철	박종열	반정어	변혜경	신순철	안준환
	양영관	엄세중	오수인	유영균	육근주	이경수
	이병우	임한나	장영진	황인중	황지영	
	송마이클					
합계 : \$2,790						
주일미사 헌금 : \$2,784						

성전헌금	장인모	강태홍	구자운	김우용	김정엽	김준호
	김 준	남명자	남성철	박상준	박원철	박종열
	변혜경	신순철	안준환	양영관	엄세중	오수인
	유영균	이경수	이병우	이일길	임한나	황인중
	황지영	송마이클				
합계 : \$1,930						

◆ 2014-2015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 대상 : 유치원~12학년
- 1차접수 : 6월15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9월7일부터 등록비 인상(\$160, \$140, \$120)
- 자모회비 : \$50(가정당)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정 : 6월27일(금)~29일(주일)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
(www.oakglen.org)
- 대상 : 3학년~12학년(선착순 50명)
- 참가비 : \$50(no refund)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 교사 ☎(310)613-9116
- 식사와 잠자는 곳이 완벽히 구비되어 있으며, 각종 운동이나 놀이시설이 잘 준비되어있는 장소이므로 접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 대상 : 한국학교 재학생(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 주제 : '우리가족' (3분이내에 자유롭게 말하기)
- 참가신청 : 5월19일까지 ksaaca@hotmail.com
- 문의 : 미주한국학교연합회 ☎(213)388-3350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2014 FIAT장학금 및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안내

- 신청자격 : 북미주거주 한인가톨릭학생(12학년, 대학생, 대학원생), 신앙공동체의 열심한 봉사자
- 본당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GPA 3.0 이상
- 신청마감 : 5월31일(http://www.fiat.org)
- 문의 : fiat@fiat.org ☎(714)772-3995 ex 106

◆ 남가주 한인M.E. 제13회 골프잔치

- 일시 : 5월31일(토) 낮12시 티오프, 샷건 플레이
- 장소 : Oak Quarry 컨트리클럽
- 참가비 : \$100 * 신청 : 각본당 ME 대표부부
- 경품과 재미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있습니다.

◆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제

- 일시 : 6월7일(토) 오후 6시30분
- 장소 : 성 바오로 한인천주교회(1920 S. Bronson Av. LA)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속주회 한국지구장)
이상훈 신부(LA대교구, 남가주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
- 대상 : 남가주 전 신자 ● 내용 : 찬미, 미사, 특강, 안수
- 회비 : 없음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회장(백삼위-강혜원 아네스)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5/18(주일) 체육대회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5/18(주일) 체육대회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5/16(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5/18(주일) 체육대회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5/18(주일) 체육대회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5/18(주일) 체육대회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5/18(주일) 체육대회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04 4/11(금) 십자가의 길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정병옥 올리아 404-1607 5/18(주일) 체육대회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조소영 수산나 804-7645 5/18(주일) 체육대회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5/18(주일) 체육대회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5/18(주일) 체육대회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종미 클라라 818-1799 5/18(주일) 체육대회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5/13(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4월 사목회	오후 1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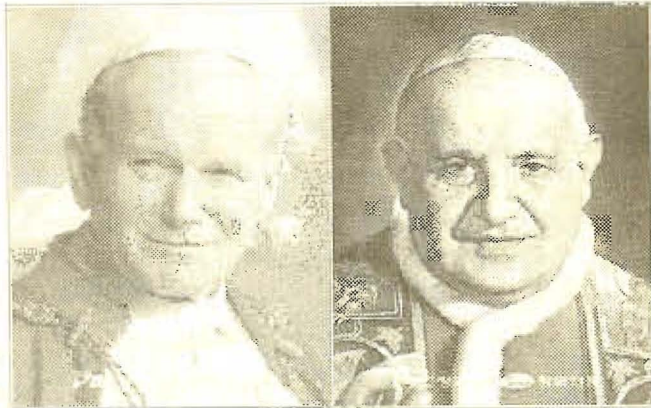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	-------

교회 역사상 처음 두 교황 동시 시성

프란치스코 교황, '20세기 위대한 두 목자'

요한 23세 요한 바오로 2세 시성 선포



▲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사진 왼쪽)과 요한 23세 교황.

복자 요한 23세(재위 1958~63)와 복자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 교황이 4월 27일 성인품에 올랐다. 두 교황이 동시에 시성되기는 가톨릭교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 제2주일이자 하느님의 자비주일인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광장에서 전 세계에서 운집한 50여만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추기경단 150여 명, 주교단 700여 명이 공동집전한 시성예식에서 요한 23세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시성을 공식 선포했다. 한국에선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대전교구장 유홍식 주교와 사제, 수도자, 시성식 참가 순례단 등이 함께했다.

이로써 요한 23세는 시복된 지 14년 만에, 요한 바오로 2세는 시복된 지 3년 만에 성인 반열에 올랐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두 교황을 동시에 시성하는 기록을 남겼다. 특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시성 관련 절차법이 마련된 이후 가장 단기간인 사후 6년 만에 시성됐다.

교황은 시성미사 강론을 통해 "두 교황은 신앙 속에서 당대 가톨릭교회의 쇄신과 적응이라는 도전에 응답한 용기와 자비의 사람이었다"면서 "사제이자 주교, 교황으로서 이들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20세기의 비극을 겪었지만 이에 꺾이지 않고 가톨릭교회의 개혁과 쇄신을 이끌었다"고 칭송했다.

이에 앞서 교황청 시성성은 지난해 7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전구를 통한 두 번째 치유기적을 승인하고 교황의 재가를 받았으며, 10월에는 요한 23세 교황이 기적심사 없이도 시성될 수 있는 거룩한 인물임을 주장하며 교황에게 시성을 요청해 시성을 결정지었다. 이에 따라 역대 두 교황이 동시에 성인 반열에 오르는 역사가 쓰였다.

◆자료 : 평화신문

- 성모 마리아의 축일은 왜 여러 날인가요?

☞ 교황 바오로 6세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더욱 뚜렷이 표현하고, 하느님 백성의 기도를 확실하게 이끌어 주기 위해서 전례력의 마리아 축일들, 그리고 마리아 신심 미사와 시간 전례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신 아들의 신비들과 성모에 대한 기념을 연결시키는 끈을 더 뚜렷이 드러내면서, 성모에 대한 기념을 아들에 대한 신비들을 지내는 전례주년에 더욱 유기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 부활초에 왜 여러 가지 표상을 새기나요?

☞ 부활초에 새겨지는 여러 가지 표상들은, 영원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으나, 이 십자가의 다섯 상처에는 우주와 시간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의 빛과 생명, 만물의 시작과 현재와 끝, 영원한 영광과 통치권을 지닌 주님이 되셨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2014년 전례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3월4일 연중 제8주간이 화요일에 끝나고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 시기에 들어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사순과 부활 시기에 이어 시작된 연중 시기, 즉 6월9일이 연중 제10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중 9주간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 예리한 질문이 저를 놀라고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한편 전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살펴 챙기는 교우님의 모습은 사제에게 큰 희망과 기쁨의 선물이었습니다.

교회의 전례는 큰 양대 산맥을 이루어 진행됩니다. 대림 시기를 품은 성탄 시기와 사순 시기를 포함한 부활 시기가 전례의 큰 산맥으로 꼽힙니다. 대림 시기를 시작으로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내면서 성탄 시기가 마감되고 이어서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며 성삼일과 부활절을 통한 부활 시기가 이어지지요. 이 부활 시기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끝으로 다시 연중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34주일에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올해, 2014년은 주님세례 축일을 시작으로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의 연중 시기가 34주간이 아니라 33주간입니다. 이런 까닭에 고정된 전례주기에 맞추기 위해서 연중 9주간을 뺐 것입니다. 교우님의 세밀한 관심이 전례의 풍성함과 신자들의 일치 안에서 더욱 크게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장재봉 신부 / 부산교구 팔천성당 주임